

엔터테인먼트

빅뱅 투어 서프 + 저연차 성장은 순항 중

임도영

엔터 | dy.lim@daolfn.com

● 빅뱅, 예상치를 상회하는 투어 규모 발표

빅뱅 20주년 투어는 총 31회, 약 137만명(회당 4.4만명) 수준의 모객이 예상된다. 공연 횟수는 부합했으나 전 일정 돔+스타디움 공연으로 구성되며 회당 수용 인원이 기존 예상치(총 33회, 94.4만명)를 상회했다. 한국 앵콜 콘서트가 추가될 경우 직전 월드투어(MADE 투어, 15.04~16.03) 규모인 약 150만명 수준까지도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 개런티의 경우 스타디움 투어인 점을 감안, 회당 약 17~18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개런티 가정치(아레나+스타디움 믹스 기준 회당 12억원)를 상회한다. 투어, MD, 앨범을 합산한 빅뱅의 매출 기여는 3Q27~1Q27 기간 동안 최소 1,511억원 이상을 전망한다(총매출이 아닌 YG 인식 방식인 총매출, 개런티, 로열티 혼재 기준).

● 시간이 필요할 뿐, 저연차 IP 성장은 순항 중

캣츠아이, 엔하이픈, 르세라핌, 보이넥스트도어, 베이비몬스터, 에스파 등 저연차 IP 전반적인 투어 규모 확대 확인. 코르티스의 경우 5월 컴백에서 음반원의 이례적인 성장세 재확인뿐만 아니라 데뷔 1년내 월드투어 개최를 발표, 본격적인 투어 시작보다는 기존에 잡혀있던 스케줄인 롤라팔루자 시카고 일정에 맞춘 프로모션겸 테스트성 투어로 판단. 한국/일본 아레나, 북미 홀 규모의 투어 구성으로 북미의 경우 회당 5.3천명으로 캣츠아이의 25년 첫 투어와 유사한 수준. 최근 진행된 선예매에서 북미 지역내 충분한 공연 수요가 확인되며 추가 회차 발생, 향후 캣츠아이의 투어 규모 확대 수순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캣츠아이 역시 신규 투어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4회차 추가, 총 31회 약 47.5만명 모객 예상.

● 하반기 개선된 주가 흐름 기대

업종 전반 상반기 동안 기존 밴드 하단을 하회하는 디레이팅이 진행됨. 수급 쏠림, 타 섹터 대비 아쉬운 이익 성장률, 단기간내 실적 추정치를 크게 상향시킬 수 있는 추가 요인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현재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밴드 기준으로도 하단에 위치. 6/11 업종 강세는 코스닥 강세와 성수기 진입 속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 빅뱅 투어 서프 등 개별 모멘텀이 더해진 영향으로 해석. 이를 감안 시 직전의 하이브 22.7배, 에스엠 11배, JYP, YG 13배 수준이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Q부터 다수의 IP 활동 재개, 7월부터는 스키즈 활동 재개(예상), 원가율 측면에서의 BTS 투어 영향 확인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큼 하반기 개선된 주가 흐름 기대. IP 체급 확대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요 저연차 IP들의 80~100만명 규모의 투어가 가능해지는 구간이 2H27~28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멀티플은 선반영될 수 있을 전망.

예상치를 상회하는 빅뱅 20주년 투어 발표

빅뱅 20주년 투어 일정이 발표됐다. 현재 발표된 일정 기준 총 31회, 약 137만명(회당 4.4만명) 수준의 모객이 예상된다. 공연 횟수는 부합했으나 전 일정 돔+스타디움 공연으로 구성되며 회당 수용 인원이 기존 예상치(총 33회, 94.4만명)를 상회했다. 언론보도 상 “추후 추가 개최지역도 순차 공개될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다만 현재 발표된 규모만으로도 지드래곤 솔로 투어(39회), 블랙핑크(33회), 2NE1(27회/15주년 투어) 횟수와 유사한 점, 27년에 태양 솔로 투어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 시 추가 일정이 공개되더라도 그 횟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드래곤, 태양의 솔로투어 및 2NE1 모두 한국 앵콜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어 한국 정도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해당 공연이 추가될 경우 직전 월드투어(MADE 투어, 15.04~16.03) 규모인 약 150만명 수준까지도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개런티 금액은 총 티켓 매출 대비 20~30% 수준이다. 스타디움 투어인 점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20% 수준으로 가정하더라도 회당 약 17~18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 개런티 가정치(아레나+스타디움 믹스 기준 회당 12억원)를 상회한다. 스타디움 투어로 진행됐던 블랙핑크의 <DEADLINE(3Q25~1Q26)> 투어의 경우 분기별 차이는 있었으나 회당 개런티가 약 22~30억원으로 타사(JYP 스키즈) 대비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며, 블랙핑크와의 IP 체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7억원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추정 대비 모객 수 상회에 따른 티켓 총매출 업사이드 대비 와이저엔터테인먼트가 인식하는 매출 업사이드 폭이 더 낮은 점은 당사의 지역별 매출 인식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 공연은 티켓 총매출을 인식하지만 일본 공연은 로열티, 기타 해외 공연은 개런티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빅뱅 투어로 하반기 상저하고 실적 가시성은 높아졌으나 2Q까지는 실적이 다소 공백기이며, 과거 블랙핑크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멀티플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후속 성장 동력에 대한 가시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6월부터 투어를 진행할 베이비몬스터의 음반원 성과가 동반되는 지속적인 투어 체급 확대, 신인 보이그룹(9월 목표), 걸그룹(27년 예상) 등 IP 포트폴리오 확장 성과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Fig. 1: 빅뱅 20주년 투어 <BIGBANG 20/26 WORLD TOUR> : 전 일정 돔+스타디움으로 구성 (회, 명)

| 연도 | 월 | 횟수 | 권역 | 지역 | 공연장 | 회당 모객 수 | 총 모객 수 | 비고 |
|------|----|----|--------------------|--------------|-------------------------------|------------|-----------|-------------------------------|
| 2026 | 8 | 3 | Korea | 지방 |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39,000 | 117,000 | 블랙핑크 모객 수 반영(회당 3.9만) |
| 2026 | 9 | 1 | USA | Oakland | Oakland Coliseum | 47,250 | 47,250 | 최대 수용인원의 75% 가정 |
| 2026 | 9 | 1 | USA | New Jersey | MetLife Stadium | 61,875 | 61,875 | 최대 수용인원의 75% 가정 |
| 2026 | 9 | 1 | Europe | Paris | Stade de France | 60,000 | 60,000 | 최대 수용인원의 75% 가정 |
| 2026 | 9 | 1 | Europe | London | Tottenham Hotspur Stadium | 47,138 | 47,138 | 최대 수용인원의 75% 가정 |
| 2026 | 10 | 2 | China | Taipei | Taipei Dome | 32,000 | 64,000 | |
| 2026 | 10 | 1 | South-East Asia | Singapore | Singapore National Stadium | 44,000 | 44,000 | |
| 2026 | 10 | 2 | South-East Asia | Hanoi | My Dinh National Stadium | 32,154 | 64,307 | |
| 2026 | 10 | 1 | Oceania | Sydney | Accor stadium | 65,600 | 65,600 | |
| 2026 | 11 | 1 | South-East Asia | Bangkok | Rajamangala National Stadium | 41,242 | 41,242 | |
| 2026 | 11 | 3 | China | Hong Kong | Kai Tak Stadium | 40,000 | 120,000 | |
| 2026 | 11 | 3 | Japan | Osaka | Kyocera Dome Osaka | 44,000 | 132,000 | |
| 2026 | 12 | 2 | Japan | Nagoya | Vantelin Dome Nagoya | 39,055 | 78,110 | |
| 2026 | 12 | 3 | Japan | Tokyo | Tokyo dome | 55,000 | 132,000 | 블랙핑크/BTS 모객 수 반영 (회당 5.5만) |
| 2026 | 12 | 2 | Japan | Fukuoka | MIZUHO PayPay Dome FUKUOKA | 38,000 | 76,000 | |
| 2027 | 1 | 1 | South-East Asia | Kuala Lumpur | National Stadium Bukit Jalil | 68,400 | 68,400 | 현 TM Stadium Nasional |
| 2027 | 1 | 1 | South-East Asia | Jakarta | Jakarta International Stadium | 65,600 | 65,600 | |
| 2027 | 2 | 2 | China | Kaohsiung | Kaohsiung National Stadium | 44,000 | 88,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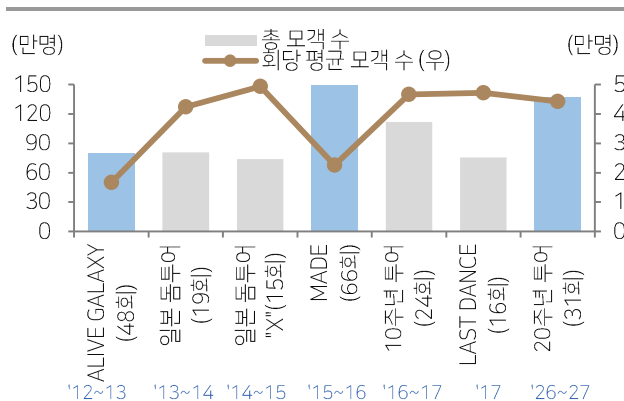
Source: 와이저엔터테인먼트, 다음투자증권

Fig. 2: 빅뱅 20주년 투어 및 앨범 매출 전망

| | 지역 | 횟수 | 회당 평균 모객 (만명) | 총 모객 (만명) | 티켓 가격 (만원) | 티켓 총액 (십억원) | MG/로열티율 | YG 반영매출 (십억원) | 비고 | |
|---------|---------------------------------------|----|---------------|-----------|------------|-------------|---------|---------------|--|---|
| 티켓 | 한국 | 3 | 3.90 | 11.7 | 17.6 | 20.6 | | 20.6 | - 지디 솔로(15.4~22 만원, 일반석 평균 17.6 만원) - 한국 앵콜 가능성은 유효하나 현재 추정치에서는 제외 | |
| | 일본 | 10 | 4.18 | 41.8 | 20.0 | 83.6 | 25% | 20.9 | - 지디 일본 평균 1.8 만엔, 블핑 일본 평균 2.5 만엔 감안 | |
| | 동남아 등 | 14 | 4.44 | 62.1 | 17.6 | 109.3 | 20% | 21.9 | - 한국과 동일 가격 가정 | |
| | 북미 | 2 | 5.46 | 10.9 | 24.2 | 26.4 | 20% | 5.3 | - 스타디움 투어이나 BTS/블핑과의 서구권내 입지 차이를 감안, 해당 IP 들보다 한단계 낮은 투바투(\$168), 세븐틴(\$150), 언하이픈(\$185) 북미 ATP 평균 \$168에 환율 1,440 원 적용 | |
| | 유럽 | 2 | 5.36 | 10.7 | 21.8 | 23.3 | 20% | 4.7 | - 북미 티켓 가격의 90% 수준 가정 | |
| | 1) 티켓 | 33 | 4.4 | 137.3 | 19.2 | 263.3 | | 73.3 | - 티켓 매출 총매출 기준 2,633 억원, YG 반영 기준 733 억원 | |
| MD | MD 총매출 | | | | | | | | 79.1 | - 객단가 \$40 가정, 환율 1,440 원 반영 |
| | 로열티 계정으로 반영되는 MD 매출 | | | | | | | | 11.1 | - 전체 MD 총매출의 30%는 로열티 반영 MD 매출로 가정 - 로열티율은 총매출 대비 47% 가정 |
| | MD 계정으로 반영되는 MD 매출 | | | | | | | | 55.3 | |
| | 2) 로열티+MD 계정 반영되는 MD 매출 합산 | | | | | | | | 66.5 | |
| 티켓 + MD | 1+2) 티켓+MD 매출 기여도(총매출 기준 X, YG 반영 기준) | | | | | | | | 139.8 | 3Q26~1Q27에 걸쳐서 반영 |
| 앨범 | 3) 3 개월 판매량 106 만장 가정(초동 85 만장) | | | | | | | | 11.3 | - 지디 정규 3 집(25.02) 판매량 감안 (초동 83.4 만장, 3 개월 107 만장) |
| 전체 | 1+2+3) 티켓+MD+앨범 | | | | | | | | 151.1 | |

Source: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3: 빅뱅 단체 투어 모객 수 추이(푸른색은 월드투어)



Source: 와이저엔터테인먼트, 언론보도,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4: 현재 20주년 투어 ATP는 보수적으로 가정, 지디 솔로투어 ATP(\$162, 당시 환율 기준 약 22.8만원)을 감안 시 추가 상향 가능성도 유효



Source: TouringAsiaPop,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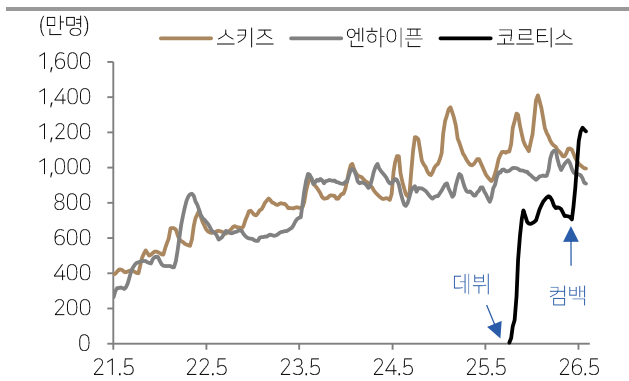
저연차 IP 성장은 순항 중: 코르티스

본격적인 실적 기여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저연차 IP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르티스는 5월 컴백에서 초동 231만장을 달성, 전작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이례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Spotify 월간 리스너 수 역시 피크 기준 약 1,233만명(6/2)까지 확대된 이후 현재는 1,200만명 선으로 공백기에 따른 하향세에 진입했다. 타이틀곡의 경우 5세대 보이그룹 중 처음으로 빌보드 버블링 언더 HOT 100(빌보드 HOT 100에 들지 못한 101~125위)에 진입(17위)했다. 데뷔 초기부터 북미 시장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한 IP였으나 최근에는 서구권뿐만 아니라 중국 팬덤까지 빠르게 유입(중국 음반 공구 물량 106만장 인증)되고 있으며, 활동이 없었던 일본 지역에서 첫 공연을 아레나로 시작하는 등 전지역에 걸친 팬덤 확장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데뷔 1년내 월드투어 개최를 발표했다. 보통 데뷔 이후 약 3개의 앨범을 발매하는 동안 팬미팅/팬콘서트를 진행, 이후 아시아투어, 월드투어 순으로 단계적인 확장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코르티스의 경우 팬미팅이나 팬콘서트뿐만 아니라 아시아투어 없이 곧바로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유사하게 데뷔 1년내 월드투어를 개최한 사례는 베이비몬스터(YG), 라이즈(SM) 정도가 있었으나 이들 역시 팬미팅/팬콘서트 이후 월드투어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코르티스의 사례는 충분히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투어의 경우 약 2개월로 짧고 지역 역시 북미 중심으로 아시아도 한국, 일본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투어 시작보다는 기존에 잡혀있던 스케줄인 미국 페스티벌(롤라팔루자 시카고, 7/30~8/2) 일정에 맞춰 프로모션 겸 테스트성 투어로 판단된다.

총 14회, 약 9.7만명 수준의 모객이 예상되며 한국/일본 아레나, 북미 홀 규모의 구성으로 북미 공연의 경우 회당 5.3천명으로 캣츠아이의 25년 첫 투어(7.5만명/16회)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주 진행된 북미 공연 선예매 물량이 빠르게 매진됐으며 뉴욕 공연의 경우 티켓팅 대기 인원은 약 46만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예매 이후 북미 일정 1회 추가되며 북미 지역내 공연 수요는 충분, 향후 캣츠아이의 투어 규모 확대 수순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Fig. 5: 코르티스, 컴백 이후 가파른 리스너 성장세 시현



Source: Spotify, 다음투자증권

Fig. 6: 데뷔 1년내 첫 월드투어 개최, 북미 선예매 매진



Source: TouringAsiaPop, 다음투자증권

Fig. 7: 보이그룹 음반 판매량, 리스너 수, 공연 모객 수 비교: 현재 코르티스와 유사한 체급인 세븐틴, 엔하이픈의 경우 80만명 이상의 투어가 가능한 그룹

| 아티스트 | 음반 초동 (만장) | 리스너 수 (만명) | 투어 규모 (만명) | 횟수 |
|--------|------------|------------|------------|----|
| BTS | 417 | 3,693 | 517 | 93 |
| 스키즈 | 304 | 994 | 222 | 56 |
| 세븐틴 | 252 | 510 | 84 | 29 |
| 코르티스 | 231 | 1,206 | 10 | 14 |
| 엔하이픈 | 208 | 911 | 81 | 36 |
| 투바투 | 181 | 665 | 56 | 29 |
| NCT 드림 | 101 | 231 | 81 | 41 |

Source: 한터차트, Spotify, 다음투자증권

저연차 IP 성장은 순항 중: 캣츠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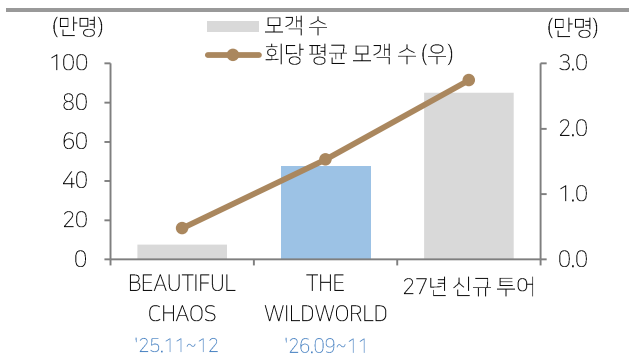
캣츠아이 역시 신규 투어에서 총 27회 약 41만명을 발표하며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다. 이후 48시간내 전체 공연 매진을 기록, 4회차(유럽 1회, 미국 2회, 멕시코 1회)를 추가하며 총 31회 약 47.5만명까지 확대됐다. 특히 긍정적인 점은 유럽 첫 진출임에도 회당 모객 규모가 북미와 유사한 수준의 공연장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K-POP IP들은 첫 월드투어에서 북미 진출, 이후 두번째 월드투어에서 유럽을 포함해왔으며 해당 투어의 유럽 공연의 경우 첫 진출인만큼 규모 역시 북미 대비 작게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캣츠아이뿐만 아니라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신규 투어를 발표한 IP들은 유럽에서도 북미와 유사한 규모의 공연장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라틴 역시 첫 공연부터 스타디움급 공연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외 유럽/라틴 지역에서의 K-POP 공연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캣츠아이의 경우 이번 투어의 회당 모객 규모가 과거 BTS, 스트레이키즈가 스타디움 중심 투어로 전환하기 직전의 구간과 유사하다. 이를 감안 시 28년으로 예상되는 차기 투어부터는 스타디움 비중이 크게 확대된 투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약 85만명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K-POP IP의 모객 부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공연 개최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모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다만 BTS의 경우 초기 일정 발표 이후 다수의 회차가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공연(한국 3회, 일본 2회, 북미 15회) 기준 발표된 모객 수를 보면 미스 없이 안정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엔하이픈 역시 첫 진출하는 라틴 지역에서 추가 회차 발표, 캣츠아이, 코르티스도 추가 일정을 발표한만큼 IP 경쟁력이 충분한 팀들의 경우 수요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수요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하이브 레이블 전반에서 티켓 가격 인상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지화 IP에도 VIP 패키지를 도입하고 있다. 공연은 음원, 음반, MD 대비 팬 만족도가 가장 높은 활동 중 하나이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성도 여타 소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특정 회사의 티켓 가격 인상 이후 타사 역시 점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며 티켓 가격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에 장기적인 티켓 단가 우상향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Fig. 8: 캣츠아이 모객 수 추이 및 전망



Source: 하이브,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9: 서구권 투어 회차 추가 사례: IP 경쟁력이 충분할 경우 수요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

| 아티스트 | 추가 회차 |
|------|--------------------------------------|
| BTS | 북미 3회, 남미 3회, 오세아니아 1회 추가 + 일본 추가 예정 |
| 엔하이픈 | 북미 2회, 동남아 1회 추가 |
| 캣츠아이 | 북미 3회, 유럽 1회 추가 |
| 코르티스 | 북미 1회 추가 |
| 트와이스 | 북미 7회, 유럽 3회, 동남아 4회, 한국 3회 추가 |

Source: 각 사, 다올투자증권

Fig. 10: 현지화 IP에도 VIP 패키지 적용 중. 기존 티켓 외에 VIP 체험권을 별도 판매



| 지역 | 티켓 외 추가 지불 가격 | | 혜택 |
|--------|---------------|----------|----------------------|
| 미국 | \$125~175 | 18~25 만원 | 사운드체크, 소규모 그룹 단체 사진 |
| 유럽/멕시코 | \$137.5~192.5 | 20~28 만원 | Q&A, VIP 키트, 우선 입장 등 |

K-POP 한국 공연 기준 VIP 티켓의 가격 차이(일반 티켓 +9만원) 대비 높게 형성

Source: 하이브,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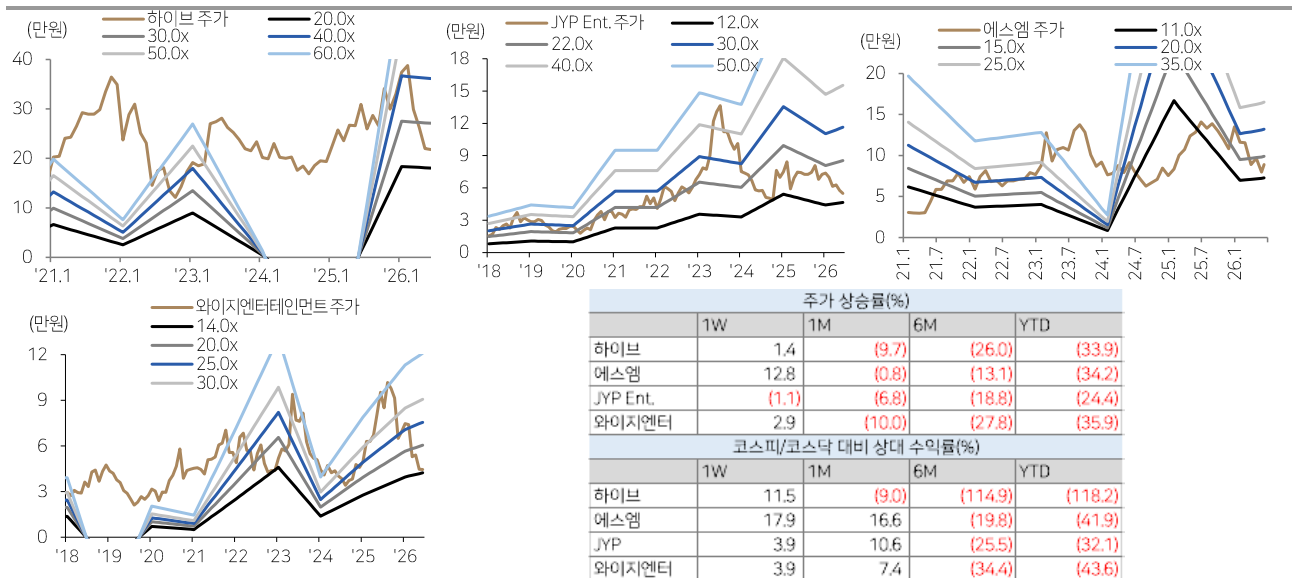
하반기 개선된 주가 흐름 기대

엔터 업종은 상반기 동안 기존 밴드 하단을 하회하는 디레이팅이 진행됐다. 수급 풀림 속 단기 모멘텀 공백, 견조한 탑라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타 섹터 대비 아쉬운 이익 성장률, 단기간내 실적 추정치를 크게 상향시킬 수 있는 추가 요인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IP 채급 확대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할 뿐, 저연차 IP들의 팬덤 확장과 투어 규모 확대는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Q부터는 성수기에 진입한다(YG는 3Q부터). 주요 저연차 IP들의 80~100만명 규모의 투어가 가능해지는 구간이 2H27~28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멀티플은 선방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P/E 밴드 기준으로도 하단에 위치해있다. 6/10일 종가 기준 12MF P/E는 하이브 22.7배(1Q 조정 영업이익 기준), 에스엠 11.1배, JYP 13.3배, YG 13.4배 수준이었으며,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인 6/11 종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하이브 24배, 그 외 SM 13.4배, JYP 및 YG는 14배 초중반 수준에 불과하다. 6/11의 업종 전반 지수 대비 아웃퍼폼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강세와 더불어 성수기 진입 속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에 컸으며 빅뱅 투어 서프 등 개별 모멘텀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이를 감안 시 6/10 종가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인 외부 변수가 없는 한 저점 수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7월 스키즈 활동 재개(예상) 및 원가율 측면에서의 BTS 투어 영향 확인 전까지 다소 모멘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6월 중 스키즈 일정 구체화가 예상되고, 2Q 실적 시즌 진입과 코르티스 및 갯츠아이의 투어 성과도 순차적으로 확인될 예정이기에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개선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업종 내 선호도는 하이브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하며 최근 서구권 중심의 신규 팬덤 유입 지속이 확인되는 스키즈와 신규 MD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한 26~27년 실적 상향 가능성이 유효한 JYP Ent.를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그 외 에스엠의 경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핵심 IP인 에스파의 최근 컴백 음원 성과는 양호했으나 음반 지표 측면에서는 초동 기준 90~110만장 수준내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아시아권내에서는 돛급까지 채급을 확대한만큼 추가적인 성장과 밸류에이션 상향을 위해서는 8월부터 진행될 서구권 투어 성과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Fig. 11: 엔터 4사 12MF P/E 밴드차트



Source: Quantiwise, 다올투자증권
 Note: 주가 상승률 및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은 6/11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 SUSPENDED: 기업가치 전망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진 경우, 분석 잠정적 중단. 적정추가 미제시.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